# 행복도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 21면에서 계속

이고 내는 모든 것을 뿌리에서 들이고 내는 것이니라.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모두 죽어 버리고 만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뿌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뿌리에 물을 촉촉하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쓰다듬지 않아도, 이파리를 세지 않아도 그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푸르르게 자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나무 잎새나 나뭇가지나 나무 둥치나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알고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알아라. 그럼으로써 경을 읽되, 경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경을 보지 않는 이치가 나오느니라. 절을 하되 절을 하는 사이가 없이 할 수 있느니라. 또 경을 보되 귀로 보고 모든 만물만생의 소리를 듣되 바로 눈으로 듣는다.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눈으로 듣는다도 없고 또 귀로 본다는 것도 없이, 바로 하나가 불끈, 하늘을 끼고 돌아가느니라." 이런 뜻에 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수십억의 의식을 두고, 생명을 두고, 모습을 두고 있는 이 몸이 그 나무와 같이 아주 크다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나무는 아주 크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고 멸하고 이러는데 사람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엇갈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복도 아니요,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면서, 대천세계 모두 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탁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되라 이런 얘깁니다.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마음 내기 이전 불성 말입니다.

그거를 일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들이고 내느냐. 마음이 들이고 내는 거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끌고 가니, 그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서 선(善)의 공덕 길로 끌어들여라." 하구요.

###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질문** : 요즘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저희 같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일 쳐 봐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에겐 가난을 되물림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답변** : 우리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디다. "스님!"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그냥 꿰뚫어 알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난한 것도 죕니까? 가난한 것들이 댁에서 과거에 부자로 살 때에 남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치않게 봤기 때문에 또 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외려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아하! 그 아주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살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질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도 공부니까. 또 '가난하게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다 공부로 알라' 하는 것도 그 앞서 그러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또 어떠한 게 닥쳐도 그 닥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양면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그냥 공부로 아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요, 스스로, 스스로 옭매듭이 찰찰찰찰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허허. 여러분들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또 보지 못하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불성이 진짜로, 진짜로 자기 뿌리라면 그렇게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계의 자기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대치하고, 보이는 데서는 육으로 대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게, 심봉과 바퀴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바퀴에 심봉이 끼지 않았다면 중심이 끼워지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심봉과 바퀴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데다가 그냥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지,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가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진짜로 이렇게 편안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 어쩌나.' 이러고 할 게 아니라, 허허허, 얼른 쉽게 말해서 이 비 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비가 오면 내 이 설법을 해야 할 텐데 이거를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끌탕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연등부처가 알아서, 모두 두 몸이 아니고 모두 자기 제자들이고 자기 한 몸인데, 자기 자식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라구. 근데 내가, 이 몸뚱일 가진 내가 바등바등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 오거든요.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 오게 되면 안 오는 거고. 내가 했다고 나를 세우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아이가 기형아일 수 있다는데…

**질문** :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요,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너무 겁이 나서 낳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요?

**답변** :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린애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기형아가 될 확률이 90, 80% 이렇다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소릴 듣는 순간 "걔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걔한테 관해. 정상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러고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못 믿는 거죠. 아예 병원의 의사 말만 저거 해서 울고 찌고 그러고 와 가지고는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고 그냥 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에이 저,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지.' 그러고 그냥 저거하죠. 그러면요, 고 뒤에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병원 의사가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보더니만 말짱하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수차에 거치면서 업이 엉겨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쉽게 그렇게 단번에 풀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자기네들인데 그거를 가르쳐 줘도 그걸 '설마인들' 그러거든요. 거죽으로는 "네" 그러면서 속으론 아니올시다야, 그냥. 벌써 아는 걸, 뭐. 그러면 내가 웃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면서도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일러 주는데도 자꾸 자꾸 딴소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세세생생보다 당장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야지, 세세생생은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아주 벗겨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우선이 아니라 세세생생일 텐데, 마음 한 생각을 고걸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우선에만 제대로 됐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유전이라는 게.

여기 올라올 때는요, '아이구, 그냥 이분들을 어떡하면 마음들이 모두 지혜롭게 벗어나게 할까?' 이 제불이라는 건 한마음이라는 얘기에요. 제불께서 더불어 같이 이분들을 그저, 정수리에 그냥 생수를, 그냥 수기를 줘서 빨리빨리 성장케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구,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럽니다. 올라오면서도 그게 슬퍼요. 나는 바쁜데 모두 꿈도 안 꾸고들 있거든요. 생각들도 안 해요, 아주. 이게 먹고사는 것보다도 제일 급한 건데.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해 나가면 먹고사는 거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인연줄이 닿든지 간에 연줄이 돼서 먹고살게 돼 있다고요.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요다음 생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 공부라는 게 때로는요, 사정없는 그 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을 때 얘깁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아이구,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러고 딱 버릴 때 순간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주에서 그런 예가 있었죠. 피가 어디로 나오는지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온통 쏟아지는데 의사 박사들 수차에 들여다봐도 어디서 나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남편은 또 아주 높은 저기에 있고 그러니깐 나 같은 건, 밀짚모자 쓰고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니까 인제 우습죠.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아마 결사적으로…. 이건 박사들이 많이, 외국 박사들도 와서 봐도 그냥, 여기다 숨 쉬는 거 꽂아 놓고는 피가 그냥 자꾸 쏟아지니까 인젠 삼일 이틀 이렇게 생명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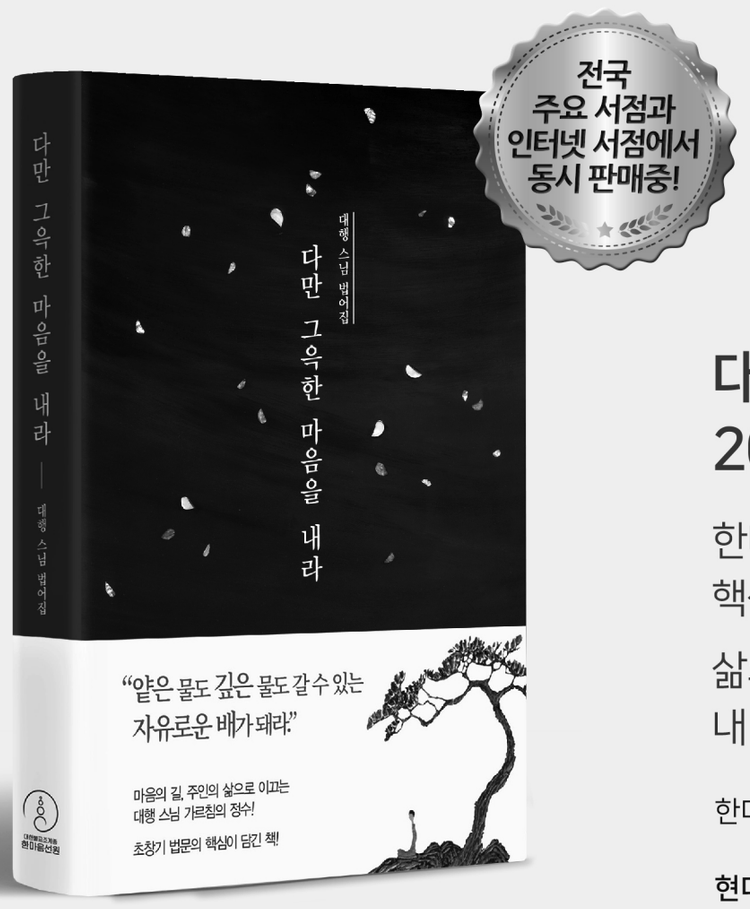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원해서 거길 갔어요. 그런데 나를 병원에서, 그 거지 같은 걸 들여보내겠소? 허허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라는 그분이 인제 저거 해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사흘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댁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지금 꽃아 놓고 죽느냐 사느냐인데. "사흘 후에 퇴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고요? 할 수 없겠죠? 할 수 없을 거예요. 웬만한, 웬만큼 그냥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저거 한 사람은 그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말이에요, "스님이 퇴원시키라면 내일 모래 퇴원시키죠." 이렇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뭐, 퇴원시키면 그냥 그때 죽는 거죠, 스님?" 그래요. 허허허. 그래서 아, 죽을지 살지는 나도 모르죠. 퇴원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것만 대답하라고 그런 거죠. 퇴원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정말 그날 퇴원해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나오고 나서 피가 딱 멈추고 그냥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디서 피가 나오나 하고 보니까 이 이마에 줄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해요. 그러니 누구도 그거는 빨리 알아낼 수가 없죠. 이 척추에다가 그냥 주사를 꽂아 놓고 빼서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거를 이어서 잘해 주겠습니까? 이건 마음으로써 그, 아니, 마음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모든 게 축소한 그 참, 이…. 연구해서 이것이 병원에 하나씩 있으면 유전성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서 다른 병도 다 나을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무뜩 나네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게 들어가서 그냥 전깃줄 잇듯 이어야 되죠.

그러니깐 이 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 이 천차만별의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이라고 이름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그 이름들이 전부 깨친 부처님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한 불이거든요. 일 불이에요, 전부. 그래서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부처님까지도 '내가 했다, 내가 앞으로도 한다, 내가 있다, 내가 부처다' 이런 소리도 절대 할 수 없는 도리가 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탓이에요. 자기가 얼마만치 자기 몸을 던져서 주인공에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해결이 나는 것이니까요.

**닥치는 모든 경계를 그냥 공부로 아시고 근본 자리에 맡겨 놓으시면요,**
**스스로 옭매듭이 찰찰찰찰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